

# 여야 예산안 처리 시점 조율 난항

### 민주당, 예산안 법정시한 내 본회의 상정·의결 입장

### 한국·바른미래당,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심사 요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30일 머리를 맞췄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점을 놓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심사는 물론 본회의에 상정해 12월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겨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7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지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은 법정처리시한 내 처리하지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아당은 그동안 예결위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철저한 예산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 기한을 연장해서 제대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서로 의견이 절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처리와 쟁점법안 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 합의된 게 없다”며 “오찬 이후에

다시 회동해서 오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당에서 예산심사를 12월 7일까지 법정기한을 넘어서 하자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두 당이)법정시한 내에 하지 않겠다고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표류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심사란 게 해야 할 필수적 법적절차가 있다”며 “필실 심사를 안 할 거면 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원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 민생경제 해결 박차 다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30일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며 소상공인 권익보호 등 민생경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환영식을 갖고 이같은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남인순 최고위원 등 당내위원과 최재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등 외부위원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큰 숙제였던 카드수수료 인하를 여러분과 당 민생연석회의, 정책위원회에서 협의해 어렵게 이뤄냈다”며 “실제로 카드업계의 저항이 심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소상공인의 교섭력이 많이 약하다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민생연석회의는 교섭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역할을 더 많이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압박을 받은 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해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최재재 연합회장도 “그동안 국회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투쟁해오신 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 현안도 상당히 많다”며 “국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야당과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영원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른 상가임대차와 카드수수료 문제 등이 민생연석회의 출범 이후 하나씩 해결되는 느낌”이라며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이끈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편의점주들이 안고있는 최저수입 보장, 공기업체 납품단가 인상 등 많은 난제가 있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과 같이 정부여당의 노력이 있다면 이러한 난제도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당내 10명, 외부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민생연석회의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병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금조정 ▲주택임대차 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30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현지공동 조사단이 탄 열차가 북한으로 출발 하고 있다.

# 南열차 北 신의주로... 공동조사 대장정

### 17일까지 서해 경의선·동해선 등 터널·교량 상태 점검

### 정부, 조사 마친 후 철도 연결·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전망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지난 30일 시작됐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12월 17일까지 서해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운행하며 선로와 터널·교량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남측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유조차, 발전차, 객차, 침대차, 짐차, 물차)은 이날 오전 6시39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서울→신의주” 이정표가 붙은 공동조사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한 지 1시간32분인 오전 8시11분께 도라산역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환승행사는 오전 8시25분께 시작했다.

황성규 철도국장은 경과보고에서 “공동조사단은 (북측 구간) 궤도, 시설, 건축, 신호, 통신 등 각 분야에 대해 성실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결 및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 북측의 우려를 반영한 동선으로 알려졌다.

안변역에서 동해선 조사단원을 태운 동해선 공동조사 열차는 원산, 함흥, 길주 등을 지나 두만강까지 이동하게 된다.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구간을 남측 열차가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동해선 총 800km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가 마무리되면 남측 조사단은 원산에서 버스를 타고 북귀할 계획이다. 공동조사 열차는 원산에서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개성까지 내려오게 된다.

이후 남측 기관차에 연결해 서울역으로 귀환하게 된다. 남북은 철도 공동조사에 관한 대략적인 일정을 사전에 조율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후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관련 기본계획 수립하는 작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어느 구간부터 할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분담할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북측과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공사는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시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조명관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차곡차곡 올해, 연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경의선 구간 공동조사가 마무리되면 평양으로 이동한 다음 열차는 평라선을 이용해 원산으로 이동하고, 남측 조사단은 육로로 귀환하게 된다. 공동조사 구간 이외의 지역은 노출하지 않겠다는 북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해선 공동조사는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남측 조사단원은 금강산역에서 안변역 구간을 버스로 이동하며 선로 등을 점검한 다음 안변역에서 열차에 탑승할 계획이다.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이어지는 선로의 안전성 등에

## “대륙으로 가는 철도 탈 수 있길”

### 평화당 정동영 대표 공동조사 축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내년 8.15에는 평양역을 지나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시작된 것을 축하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30일 도라산역에서 열린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 환송행사에 참석해 “저는 10여 년 전부터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작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해마다 회원 30여 명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4500km, 모스크바까지 9900km, 180시간 동안 철도를 타고 가면서 언젠가는 북녘 땅을 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염원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경의선 철도가 대륙으로 이어지게 되면 지금 부산항에서 배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또 거기서 모스크바까지 45일 걸려서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단 10일이면 부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며 “남북 철도 물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염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꿰어졌던 남북 철길 다시 이어지길”

### 민주당 안호영 의원, 공동조사 환송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30일부터 시작되는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꿰어졌던 남북의 철길이 다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도라산역에서 개최된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단 환송행사에 참석, 공동조사는 남북 공동번영의 신호탄이자, 한반도 경제영토 확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어 안 의원은 28명으로 구성된 남측의 현지조사단에 대한 북한의 철도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남북 정상 합의대로 철도 연결공사 착공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북철도의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는 이날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 동안, 경의선, 동해선 등 2,600km 구간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muju 무주군**

Lohas Zone-Muju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주반디불**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해발 400~800m, 연 평균 11.3°C, 한 여름 평균 기온 24°C의 보물창고 남부지역 유일의 고랭지 무주가 키워냈습니다! 무주사람들이 정성으로 일궈냈습니다!

맛도 영양도 품질도 으뜸 무주반디불 농·특산물

판매처 무주반디불사이버장터 [www.mj1614.com](http://www.mj1614.com) 무주군 직영 063)322-0278 / 320-2770 / 080-055-0027

발행처 무주군청 | 발행인 무주군수 | 편집인 기획조정실 홍보담당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전화 063320-2223